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 (공연제작,창작공간) 전통예술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제작,창작공간)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4년 12월 3일 (화)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4년 12월 13일 (금)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1차) 전지영, 정성진, 정효성, 오영주, 원일
(2차) 전지영, 정성진, 정효성, 오영주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 전통예술 분야 지원액은 1,475백만원으로 공연제작과 창작공간을 복수 신청한 1개 단체를 포함하여 33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이중 13개 단체가 지원결정되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은 예술단체의 중장기적 활동을 보장하여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예술생태계에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체별 지원규모가 큰만큼 지원사업의 무게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심의는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예술적 능력 외 조직과 인력구성, 예술인 권익보호 노력 등 포함),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예산계획 포함), 파급력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공연제작의 경우 전체 30개 단체 중 1차 서류심의를 통해 13개 단체를 인터뷰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인터뷰심의를 통해 최종 10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창작공간의 경우 총 4개 공간 모두에 대해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3개 공간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류심의는 심의위원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점수집계표를 존중하되 필요한 내용을 논의에 붙여서 인터뷰대상을 선정했고, 인터뷰심의는 15분 동안 단체의 문제의식과 사업비전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공연제작의 경우 특정 예술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편중을 막기 위해 기존 중장기지원사업에 이미 수혜를 입은 단체는 본 사업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2개 단체 이내로 선정을 제한하여 신규 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연제작 및 창작공간 모두 수도권 편중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안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지속가능성과 예술생태계 활력이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예술적 비전과 활동 방향성에 대한 내용도 심의에서 고려하였습니다.

공연제작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역시 단체의 예술적 능력과 본 사업의 성과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크다보니 단체의

기대치도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 단체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세부 내용이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기 지원 수혜 단체의 경우는 사업계획이나 예술적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규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에 따라 2개 단체만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을 최소화하여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단체의 예산계획이 정교하고 합리적인 사업,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규모에 걸맞게 구체성을 잘 제시한 사업이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통예술분야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음악, 연희 등 구체적인 전통예술 양식과 연출적 아이디어를 잘 제시한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예술적 성취방향을 잘 제시한 경우 등이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취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창작공간의 경우 신청이 4건밖에 되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인 신청노력이 아쉬웠으나, 신청건수 모두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전통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공간운영에 있어 사업수행의 합리성과 특화된 사업을 위한 소화력 차원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경우를 제외하고 3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극장 지원이 중심이 되어버린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공간들의 신청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원사업 체계가 바뀐 탓에 전반적인 사업이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미비나 신청사업 내용적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술단체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바람과 동시에 예술단체의 시선에서 간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들의 제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의 무게가 크다보니 신청자격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술단체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용기를 내지 않고 있지 않은가 묻고 싶으며,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신청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 유명세에 안주하면서 공적 기금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지 않거나, 전통음악이나 전통연희의 양식적 고민이 없이 스토리나 연출적 고민만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원금은 단체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 예술단체가 공적기금의 책임의식을 보다 무게 있게 갖고 예술활동에 임하여 보다 활력 있는 예술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